예성 청소년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전국 예성 청소년 500여 명, 말씀과 체험으로 믿음의 정체성 다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종만 목사) 소속 청소년과 함께한 2026 예성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가 8월 5일(수)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26 예성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는 8월 3일(월)부터 2박 3일간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학생부(부장 임시영 목사) 주최 · 예성청소년사역위원회(위원장 윤성철 목사)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거듭남을 뜻하는 'REBORN'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중생'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19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500여 명의 전국 예성 청소년들과 스텝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선교적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예성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이하 '예청수련회')는 교단 설립 이래로 진행되어왔으나 2019년 예성청소년사역위원회(이하 '청사위')가 출범된 뒤 청사위에서 주관하여 예성 청소년만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사위는 예청수련회를 통해 2022년부터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중생 (The Great Awakening), 성결(Grwo-Up), 재림(예성답게 예수 닮게), 신유(The Power : God's Message Is The Power)를 중심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다시 중생(REBORN)으로 돌아와 "거듭난 사람의 소명 '선교'"라는 소명 의식을 심어 주었다.

특히 올해는 수련회 참석자 중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전액 지원되는 선교지 방문을 계획했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의 신청이 이어졌다.

올해는 성결대학교의 기숙사 부재로 많은 교회가 안양 지역의 호텔을 이용해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으며, 그럼에도 스텝을 포함하여 약 500명의 수련회의 인원이 함께 하였다.

또한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예성갓탈랜트 △ 영화상영(무명) △방탈출 △아넌딜라이트 콘서트 △워터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과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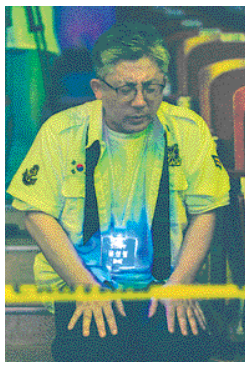
매일 저녁은 찬양 및 말씀집회, 기도회 시간을 진행하였으며, 말씀에는 △최현 목사(달빛교회) △최창수 목사(로이디자인 대표, 수지예본교회 고등부 담당) △서종현 선교사 (ETM선교회 대표) △윤성철 목사(예성청소년사역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하였다.

윤성철 청사위 위원장은 "2026 예성전국청소년수련회를 통해 예성 청소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사중복음 수련회를 통하여 새롭게 된 예성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정, 교회와 교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청수련회와 관련된 내용은 인스타그램(@sungkyulyouthcam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뷰 : 청소년사역위원회 위원장 윤성철 목사

"세상의 밤바다를 뚫고, 은혜의 여권을 쥔 청소년 선교사들이 출항합니다"



청소년사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청사위 · 사진) 윤성철 목사는 "2026 예성전국청소년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사위 위원장 윤성철 목사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이번 2026 예성 청소년전국연합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동행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성결대학교의 기숙사 부재로 인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인근 안양 지역의 호텔을 숙소로 이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잠자리 이동과 동선 관리 등 인간적인 염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500여 명의 청소년들과 교사, 그리고 스텝들이 은혜 앞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숙소의 불편함조차 기도의 제단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승화시켰고, 밤늦게까지 기도의 눈물로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기도로 발걸음을 챙겨준 동역자들과 스텝들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Q2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사중복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중생을 재해석한 'ReBorn(거듭남)'이었습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에게 왜 거듭남의 메시지가 그토록 시급했을까요?

오늘날 청소년들은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 SNS 속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상처와 열등감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세상은 늘 "더 치열하게 경쟁해서 성적을 올리고 스펙을 쌓으라"며 아이들을 코너로 내몹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영적 치트키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아예 새롭게 지음받는 기적, 즉 'Reorn(거듭남)'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수준의 자기 계발이 아니라 인생의 영적 OS(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완벽한 리셋'을 의미합니다.

Q3 스텝들이 '항해자(Navigator/Sailor)'크루 제복을 입고, 불이 들어오는 이름표를 걸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의상에 담긴 영적 비화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죄와 열등감이라는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 밤바다 속에서 홀로 표류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텝들이 '흰색 항해자 크루 제복'을 입고 '등대'와 같은 빛이 나는 이름표를 걸고 기도의 키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 선장(Captain)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아이들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영적 대항해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도록 돕는 '영적 가이드(Navigator)'가 되겠다는 결연한 약속과 정체성을 담은 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텝들은 안내와 찬양, 미디어와 기도회 자리에서 항해자 크루로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Q4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신앙 여권(Passp ort)'과 프로그램별 '스탬프 적립' 제도 그리고 '만나 코인'이 현장에서 매우 신선하고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단순한 행사의 재미를 넘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직접 오감으로 각인시켜 주고 싶어 '영적 여권'을 제작해 발급했습니다. 아이들은 수련회 기간 내내 자신의 여권을 들고 다니며, 예성갓탤런트를 통해 주님이 주신 끼와 재능을 마음껏 무대 위에 쏟아붓고, 코드네임 517 방탈출 게임 요원이 되어 협동과 단서를 풀어가며, 크리스천 래퍼 아넌딜라이트 콘서트에서 신앙을 힙하게 고백하고, 일본 선교사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무명'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부스에서 은혜의 스탬프를 가득 채워 나갔습니다. 이 도장들은 단순한 스티커나 기념품이 아닙니다. 특히 각 대륙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은 뒤에 받은 '선교 기도 완료' 도장과 마지막 날 세계 지도 앞에서 열방을 향해 무릎으로 중보하며 '선교사 후보 지원서'를 작성하고 가슴 졸이며 찍었던 최종 '파송 스탬프'는 아이들의 심령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하늘나라 사명의 선교 비자(Visa)'이자 기적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Q5 수련회 마지막 날의 대미를 장식한 '은혜의 워터밤(Waterb omb)' 역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파격적인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단 수련회에서 이를 전격 도입하신 비결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페스티벌보다 훨씬 뜨겁고 찬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쏟아지는 시원한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며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고 뛰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물줄기 속에서 아이들은 그간 학업으로 짓눌렸던 모든 스트레스와 마음속 우울, 상처들을 완전히 털어내어 씻어 보냈습니다. 성령의 단비에 온몸과 영혼이 흠뻑 적셔지는 해방감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형제자매들과 서로 물총을 쏘고 손을 맞잡으며 하나 되는 축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은혜로 충만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전진하기 위한 가장 역동적이고 기쁜 파송의 선포식이었습니다.

Q6 이제 수련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청소년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성 청소년사역위원회가 꿈꾸는 앞으로의 다음 세대 사역 비전과 성도님들께 전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수련회의 은혜로운 축제는 2박 3일로 끝났지만, 아이들의 위대한 모험과 영적 항해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손에 꼭 쥔 '신앙 여권'에 선교비자를 받고 파송된 500여 명의 청소년 선교사들이 이제 각자의 가정과 학교, 학원이라는 자신만의 선교지로 힘차게 출항했습니다. 이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주님과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당당하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청소년사역위원회는 단회성 행사로 이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항해를 떠난 다음 세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교단적 차원에서 양육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기도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 평생 함께 항해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청소년사역위원회 여름 사역보고

수입결산(단위: 원)

관	항	목	비용
일반			
	참가비		38,480,000
	전입금	총회	2,300,000
		청소년사역위원회(윤성철 목사)	15,000,000
후원금			
	후원금(지교회)		
		개동교회(윤성철 목사)	15,000,000
		독일교회(송민우 목사)	2,000,000
		새예덴교회(김영국 목사)	1,000,000
		신월동교회(고신원 목사)	1,000,000
		신수동교회(임시영 목사)	1,000,000
		거룩한씨성동교회(최윤영 목사)	1,000,000
		생명수샘교회(이종만 목사)	1,000,000
		주님앞에제일교회(노윤식 목사)	1,000,000
		복된교회(류우열 목사)	1,000,000
		새힘교회(류명수 목사)	500,000
		하늘바람교회(전승학 목사)	500,000
		코디엠교회 (이충동 목사)	500,000
		부평남부교회(위성섭 목사)	500,000
		부평성산교회(서영원 목사)	500,000
		두란노교회(이상문 목사)	500,000
		청동성결교회(서계원 목사)	300,000
		햇빛교회(김상혁 목사)	300,000
		아름다운포도원교회(김성철 목사)	300,000
		동광제일교회(김덕정 목사)	300,000
		등촌제일교회(이병현 목사)	300,000
		문래동교회(양순기 목사)	300,000
		참좋은교회(박용철 목사)	300,000
		인해중앙교회(신현파 목사)	300,000
		The Way Church(유병숙 전도사)	300,000
		장신교회(석진성 목사)	200,000
		삶을변화시키는교회(허상범 목사)	200,000
		원당교회(이명화 목사)	200,000
		사귐의교회(강정규 목사)	100,000
		평화교회(이대은 목사)	100,000
	후원금(지방회)		
		서울북지방회(진영복 목사)	500,000
		서울중부지방회(이규명 목사)	500,000
		서울동지방회(최윤영 목사)	300,000

관	항	목	비용
후원금	후원금 (기관 및 단체)	국내선교위원회(위성섭 목사)	1,000,000
		이음목회연합(최윤영 목사)	1,000,000
		성결그루터기선교회(이충동 목사)	1,000,000
		예성여전도회연합회(이혜경 권사)	500,000
		예성유지재단(류제곤 목사)	500,000
		예성은급재단(김정일 목사)	300,000
		예성남전도회연합회(차천용 장로)	300,000
		예성부흥사회(이상복 목사)	300,000
		성결신학원(김성진 목사)	300,000
		예성여목회자회(양재은 목사)	200,000
		예성사모회(김진아 사모)	200,000
	개인후원	나현도 목사(은급국장)	500,000
		박정수 교수(성결대)	100,000
		손지혁 청년(개동교회)	700,000
	기타후원	가브리엘 미디어	500,000
		성혜테크	500,000
		태안참아름다운교회 교사일	50,000
총계			95,530,000

후원 품목

후원품	이름	후원내역
후원품	개동교회(208구역)	인형키링 200개
	개동교회(208구역)	응원봉 240개
	개동교회(고정화, 류선희, 송숙자)	스텝주일저녁식사 삼계탕 50개
	개동교회(김태원)	스텝저녁 저녁간식 떡볶이, 샌드위치, 음료, 핫도그
	개동교회(류명수, 임현수, 양정인)	스텝 월요일 조식, 삼각김밥, 음료
	개동교회(송교열)	스텝 화요일 간식, 치킨
	개동교회(오안젤라, 정수영)	스텝 간식 떡볶이
	개동교회(손영후)	무선시스템 부품(예성갓탤렌트)
	개동교회(송교열)	LED사각등(예성갓탤렌트)
	개동교회(송숙자)	검정색 암막천(방탈출)
	개동유치원(임지혜)	시리얼, 딸기잼, 버터, 박카스
	렐보브라운	키링 30개
	성결대학교(정희성 총장)	아이스크림 100만원
협찬	성결대학교 융합학부, 홍보실	미디어 장비
	성결대학교 융합학부	스피로우
	개동유치원(임지혜)	드론축구 장비
	거룩한씨성동교회	대형전기포트
	부흥하는 독일교회 신수동교회	셔틀차량

지출 결산(단위: 원)

관	항	목	계	소계	총계
운영비					44,838,240
	숙박, 시설, 식사			24,825,470	
		숙소	20,625,470		
		시설	4,200,000		
	아침 / 간식			20,012,770	
		아침 및 식사	15,440,000		
		간식 및 음료 물	4,572,770		
행사비					49,123,102
	행사 운영			38,320,052	
		강사비, 공연비	4,800,000		
		찬양, 워십팀	2,700,000		
		프로그램 운영	11,498,789		
		무대,음향,조명,영상	16,527,688		
		진행비	2,793,575		
	행사 준비			6,255,320	
		단체티 및 스텝의상	5,357,990		
		비품비	897,330		
	행사 홍보			2,488,940	
		홍보비 포스터	902,140		
		행사 운영관련	486,800		
		성결신문사	1,100,000		
	기타			2,058,790	
		행정비	1,000,000		
		기타	1,058,790		
예비비					1,568,658
	예비비			1,568,658	
		예비비	1,568,658		
총계			95,530,000	95,530,000	95,530,000

| 주관 | 예성청소년사역위원회 | 주최 | 총회학생부